

포르말린시장 가격경쟁 치열

원목산업 불황 수요 정체 ... 수출부진으로 어려움 가중

국내 포르말린(Formaldehyde) 산업은 최근 그 수요가 감소, 사양화되고 있다.

포르말린의 주 수요처는 원목 및 합판 제조 기업으로 접착제용 포르말린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다.

포르말린 용도 가운데 합판업체가 총 수요 25만톤 중 65~70%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.

포르말린 생산은 수요정체에 따라 주춤세를 보여 삼양화학 7만2000톤, 유진화학 5만톤, 선창 3만6000톤, 성창 3만6000톤, 대한합성 3만6000톤, 해인 3만600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.

포르말린 생산능력		(단위 : M/T)
구 분	생산능력	
삼 양 화 학	72,000	
유 진 화 학	50,000	
선 창 산 업	36,000	
성 창 기 업	36,000	
서 울 대 한 합 성	36,000	
해 인 기 업	36,000	

삼양화학의 92년 판매량은 한양BASF에 1만2000톤, 한국카리화학 9600톤, 영우화학 4800톤, 두산전자 3600톤, 삼양상사 3600톤, 신광화학 3000톤, 대종산업 1440톤, 코오롱유화에 1800톤, 금강 720톤 등이다.

유진화학의 92년 판매량은 1만8000톤으로 총 5만톤을 생산, 50%를 자가소비한 후 50%는 목재기업에 판매했으며 유진화학의 자가소비용은 2만톤으로 pentaerythritol 용 1만5000톤, Hexamine 원료용 등에 5000톤이 각각 사용되었다. 유진화학은 한국카리화학에 1만4400톤, 이견산업 6000톤, 현대목재 1200톤 등 목재기업에 총 1만톤

을 판매했다.

포르말린 내수가격은 원료인 메탄올에 연동하여 내수가격은 KG당 110~120원, 로칼 가격은 KG당 100원에 거래되고 있다.

<화학저널 1993/10/25>